

# 판문점 연락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관심'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우리 입장은 긍정적이나, 너무 앞서가다간 역효과 부를수 있어”

지난 3일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를 통해 1년 11개월 만에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관심이 쏠린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측은 조심스럽게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4일 “우리 입장은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드러내기도 좀 그렇다”면서 “속사정은 나쁘지 않다 지켜보겠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남북 대화 채널 재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다간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신 회장의 생각이다.

신 회장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충분히 있다”면서 “올림픽이 한 달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속적으로 남북 문제를 다루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가 개성공단 말고 뭐가 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북에서 (동계올림픽) 참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문제, 경제문제 이런 게 다뤄지면서 개성공단이 다뤄지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에 처음 시작된 지난 88 서울올림픽을 회상하며 이번 남북 해빙모드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게

점치기도 했다.

그는 “시간적으로 묘한 것이 남북문제 경험 처음 다른 게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것 아니냐”면서 “그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계기를 만들고, 30년 후에 겨울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방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묘하게 타이밍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먼 얘기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 했다.

전반적인 현 상황이 비관적이지만

제한적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아직은 먼 얘기”라면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 핵,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고, 미국이 3개월 내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는 ICBM을 완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평창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안보리의 제재가 여러 겹으로 추가제재들이 들어가고, 규정된 그런 언행이나 내용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결의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가동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황금 개띠 맞아 새해 인사하는 로봇 독** 롯데백화점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새해를 맞아 '로봇독 (Robot Dog)'의 새해 인사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황금 개띠 해를 맞아 로봇 개이 5cm와 2.7m 크기의 초대형 로봇이 함께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참여대상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31일까지... 3541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중화)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와 변화, 혁신을 꾀하는 시장 지원을 위해 2018년에 총 3,541억원을 투입계획으로, 희망사업 프로젝트(舊 특성화), 주차장·화재안전시설 설치, 청년몰 조성 등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참여대상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격벽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 점과 관 주도 하향식 방식은 상인 주도의 상향식 시장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한 점이다.

2018년도 전통시장 지원의 세부 주요 특징으로 먼저, 화재안전평가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 노후전기설비 정비 등 총체적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화재발생시 골든타임(5분) 이내 소방법서 및 상인에 자동 통보하여 화재 초기대응력을 강화한다.

시설현대화 추진 시, 화재안전 취약 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2021. 300여곳)도 추진한다.

상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舊, 지역선도·문광형 기반)를 도입하고, 특성화사업 참여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맞춤형시장'(舊, 골목형 기반)을 신설한다.

한편,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성과 이력관리기 가능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와 점검을 철저히 한다.

정부사업 종료 후 5년간 매출현황, 객단가, 이용 고객수, 주차장 이용률 등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성과 미흡시장은 향후 지원 사업 지원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2018년도 중소기업부의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중점 기조는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 역량 제고에 있다"면서 올해에도 우리 전북청은 다수 전통시장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기 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으며, 그리고, 이러한 지원 공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도 발휘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새해에만 맛볼 수 있어요”

### 외식업계, 특별 한정메뉴 선보여

신년을 맞아 외식업계가 새해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복이나 행운 등 새해 소망을 담은 단어가 들어간 메뉴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새해 특별 메뉴 등 다양한 새해 한정판 메뉴들을 앞세우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남에 프랜차이즈의 삼겹살 브랜드 '하남돼지집'은 새해를 맞아 기간 한정 메뉴인 복(福)돼지세트를 오는 12일까지 판매한다.

복(福)돼지세트는 복을 부르는 동물인 돼지도 먹고 복도 많이 받으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메뉴다.

삼겹살 2인분, 가브리살 1인분, 돼지고기 김치찌개, 공기밥 2개, 음료수 등으로 구성했다.

또 새해 한정 메뉴의 특별함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구성 메뉴 중 돼지 한 마리에서 약 200g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부위인 가브리살을 추가했다.

'백도날드'는 2013년부터 매년 새해 행운을 빈다는 뜻으로 선보여온 행운버거를 올해도 출시해 오는 25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졸깃한 쇠고기 패티에 갈릭 소스를 더해 딱딱비를 연상시키는 맛을 느낄 수 있는 '행운버거 골드'와 쇠고기 패티에 토마토찰리 소스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한 맛의 '행운버거 레드' 등 두 종류다.

여기에 통감자로 만들어져 바삭 바삭한 맛이 특징인 '컬리 후라이'도 행운버거 판매 시즈에만 제공한다.

KFC도 기간 한정으로 '황금개의 해'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지난 연말부터 진행 중이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핫크리스피치킨 또는 오리지넬치킨 버킷과 텐더스트립스 9조각 등 18조각을 차킨한 마리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뉴시스

## 이스타항공, 일본 규슈 지역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일본 규슈 오이타에 신규 취항한다.

이번 오이타 신규취항을 기념해 이스타항공은 4일 오후 2시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규슈 지역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기간 1월5일부터 2월28일까지 출발 항공편에 대해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인천-후쿠오카 9만9000원 ▲인천-가고시마 9만9000원 ▲

천-미야자키 8만9000원 ▲인천-오이타 9만9000원부터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이벤트 예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본 규슈 퀴즈 이벤트를 통해 오이타 왕복항공권, 이스타항공 모험항공기, 커피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번 신규취항으로 이스타항공은 9개 일본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김민근 기자

## 정부 “외화반출해 원화강세 대응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 해외투자자 외화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화가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할 경우 해외투자를 통한 외화반출 확대에 전향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정부야 원론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게 맞다”며 “해당 방안은 예전에도 몇번 활용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급격한 원화 절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화 반출을 늘리는(boosting outflows)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저점을 경신해왔다.

지난 2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9.3원 급락해 1061.2원으로 3년2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4일에는 소폭 오른 1065원으로 개장해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편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는 등 대북 리스크가 보다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압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